

# 양촌선생(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지난호에 이어)

탕 임금 때의 가품은 경문(經文)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 일의 유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여섯 가지 일로 자신을 꾸짖으니 성인이 재난을 만나서 근심하고 열심히 하는 마음을 보기에 충분하다 '사기'에 "이수(伊水)와 낙수(落水)가 마르자 하 나라가 망하였다"고 하였으니, 걸 임금 때 가품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탕이 스스로 꾸짖은 것은 아마도 걸 임금 때리라. 탕이 감히 자신 때문에 생긴 재앙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으니, 예컨대 홍수의 환란이요 임금 때 시작되었거늘 순 임금이 "자신을 경계시킨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걸이 남긴 폐해이다"라고 하였지만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주의 굶주린 백성들이 은나라를 이겼어도 풍년이 들었으며, 춘추시대의 혼란한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있었어도 비는 내렸다.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감응함이 매우 빠르니, 잔학함을 관대함으로 대신할 수 없다. 모든 나라를 바로잡을 때에도 걸이 남긴 폐해가 오히려 7년이라는 오랜 세월에까지 미쳤다. 탕 임금이 걸을 내쫓은 초기에 이미 "하늘과 땅으로부터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떨쳐 두려워한다"는 말

이 있었으니, 성인은 재난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이와 같다. 만약에 하나라를 정벌한 뒤에 과연 이와 같은 재난이 있었다면, 이윤(伊尹)과 중혜(仲翬) 같은 사람이 탄식하고 경계하여 근심스런 마음을 훈(訓)과 고(誥)에 표현하는 것이 전(典)과 모(謨)에서 나타난 흥수보다 심했을 것이다.

지금 서문(書文)에는 대략 가품에 대하여 한 마디 말도 없음을 탕 임금 때 가품이 있었다는 사실이 역시 허황된 것임을 의미한다. 전하는 사람은 다만 삼림(桑林)에서 자책한 사건만을 보았을 것이요, 그 나머지는 인도(人道)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인도를 다한 후에 천도와 지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요전>은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며, 성(姓)을 정하고 종족을 분별하여 백성이 변화함에 이르렀다"고 먼저 말한 연후에 "백성들에게 농사지를 시기를 알려 주물같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임금은 근심하였고, 하 나라 때 재앙이 내렸으므로 탕 임금은 스스로 자신을 꾸짖은 것이다. 성인이 재앙을 만났음은 볼 수 없고, 다만 성인의 마음에 항상 근심하고 근면함이 있음을 볼 따름이다.

■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이것이 모두 후세의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끌어와 한가롭고 안일하게 지낸 것들이다. 그러므로 외람되지만 그 설을 지어 변론한다.

15

성인이 하늘과 땅에 참여하여 법도를 세웠으니 깨우친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리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전모(典謨)에 실린 내용이 이 세 가지를 넘지 않는다. 천체를 관찰해서 백성들에게 농사 절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천도(天道)를 다스리는 것이요, 곤(鯀)에게 명하여 치수(治水)하게 한 것은 지도(地道)를 다스리는 것이요, 그 나머지는 인도(人道)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인도를 다한 후에 천도와 지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요전>은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며, 성(姓)을 정하고 종족을 분별하여 백성이 변화함에 이르렀다"고 먼저 말한 연후에 "백성들에게 농사지를 시기를 알려 주물같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임금은 근심하였고, 하 나라 때 재앙이 내렸으므로 탕 임금은 스스로 자신을 꾸짖은 것이다. 성인이 재앙을 만났음은 볼 수 없고, 다만 성인의 마음에 항상 근심하고 근면함이 있음을 볼 따름이다.

고, 구관(九官)을 명하고, 십이목(十二牧)에게 물었으니 우와 고요와 익직의 계획도 모두 이것들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다. 천도·지도·인도가 다 펼쳐지니 참여하여 돕는 공이 비로소 갖추어졌다. 공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예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지어지게 되면, 하늘과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나의 큰 화합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삼모(三謨)의 끝인 <익직>에 기(饒)의 음악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은 순 임금의 기상을 형용한 것이다. 그 노래 가사에 "조상님들이 와서 이르시도 우빈(虞賓 : 요 임금의 아들 단주)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제후들과 덕으로 사양합니다"라고 한 것은 신과 인간의 지극한 조화며, "새와 짐승이 너물너물 춤을 추며 봉황이 와서 춤을 춘다"라고 한 것은 하늘과 땅의 큰 조화며, 성스러운 신의 공덕과 교화의 극치로써 더 이상 보탬이 없다. 그러나 성인의 다스림이 이미 지극하고 마음이 무궁(無窮)한데도 반드시 축천지가(勅天之歌)로 마무리를 지은 것은 성인의 한결같은 마음은 천성이요, 인도(人道)를 다해서 하늘과 합일하는데 중요성을 돌리는 까닭이다. 그 요점을 단지 '흠(敬)'에 있을 뿐이다. <전>도 '흠'에서 시작하고 <모>도 '흠'에서 마쳤다. 시종 한결같이 경(敬)하는 것이니, 이것이 요·순의 다스림이 성대한 까닭이다. 뒤에 다스리는 자들이 거울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 특별기고 <39회>



7월에 진사 정세아(鄭世雅, 1535~1612)를 비롯한 60여 인이, 마침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1538~1583)이 경상도 초유사(都諭使)가 되어오니 이에 글을 올려 '의병들이 각기 산만하게 흩어져 활동하다 보니 제대로 통제가 안 되어 왜적들과의 전투에 차질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자 학봉은 권응수 장군의 충성과 용기 및 승첩소식들이 여러 고을에 자자하고 이를 전해들은 바가 있었다. 그런 연유로 학봉은 곧 충의공을 의병대장으로 삼아 경상좌도, 곧 낙동강 이동 모든 고을의 의병들을 공의 지휘와 절제를 받게 하였다.

정세아는 영전에 세거(世居)한 사람으로 진사였는데 그때 나이가 58세였다. 자는 화숙(和淑)이고 호는 호수(湖叟)며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임진년에 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격파하고 그 공로로 황산찰방(黃山察訪)에 임명되었다. 사후에 여러 차례 증직되어 병조 판서에까지 이르렀다. 시호는 강의(剛義)이다. 이 때 충의공 휘하로 들어와 합심하여 영전성 탈환과 경주성 격퇴에도 공이 컸다. 정세아의 아들은 의번(宜藩)인데, 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경주(慶州) 전투에서 정세아가 포위되니 의번이 두 번이나 여러 겹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다가 마침내 적군에게 잡혔으나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뒤에 정려(旌闕)되었다.

7월 14일 왜적 1백 여명이 군위(軍威)를 떠나 남하하고, 충의공은 휘하 몇몇 장수들과 몰래 이들의 뒤를 밟았다. 왜적들이 우글거리는 영전성 못 미처 10리 지역인 박연(朴淵) 연못 주위 곳곳에 북병을 배치하고 기다리던 충의공은 왜적이 나타나자 지시

#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창의(倡義)와 공업(功業) (5)

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를 내렸다. '각 진마다 파상적 공격하고 물러나고를 반복하라' 이렇게 백병전을 피하여 10진을 게릴라식 전투방식을 택하여 의병은 한 사람의 부상도 없이, 왜적 소부대를 무찌르게 되어 37명의 목을 베고 조총 25정, 칼과 창 40자루와 적장의 말까지 빼앗았다. 이로부터 충의공의 의병부대는 왜적의 조총을 이용하게 되었다.

7월 22일 이번에는 왜적 3백 여명이 '봉고어사(封庫御史)라고 자칭하면서 영전에서 군위로 이동하면서 신병을 합하여 오는데, 영천 교외에서 추격을 시작한 충의공은 신병을 지나자 이곳 고향지리에 밝은 사위길로 적을 앞질러 해질 무렵 소계(召溪)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비밀결에 잠복하고 있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불시에 한꺼번에 활과 조총을 쏘아붙여 30여명이 쓰러졌다. 왜적들의 3백 여명의 중급부대도 황급히 놀라 허둥지둥 달아나기 위해 버렸다. 이참에 왜적의 말 4필도 노획하였다. 이날 다시 사천(沙川)에서 왜적의 한 부대를 쫓아 격퇴하였다. 이 때 충의공은 달아나는 왜적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3개월 전에 부산에 상륙했던 왜적들의 형세나 물결들이 아니었다. 굶주리고 곳곳에서 출몰하는 의병들로 휴식도 제대로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상태를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충의공의 의병부대에 비해서는 왜적을 대부대, 곧 영천성 안에 주둔하여 고수하고 있는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이에 충의공은 부하 의병들을 수습하여 중리로 돌아와 휘하 의병장들을 불러 모아 작전회의를 하고 "힘을 모아 영전성의 왜적을 일시에 공격하여 탈환하자."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경상좌도 모든 의병장들에게 4일 후인 "7월 28일 첫새벽, 영전성 밖에 모여라"라는 격문을 전달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생원 최인제(崔仁濟)와 전삼익(全三益) 형제 그리고 전 협감 권황

(權濬) 등이 충의공의 군진에 도착하였다. 23일에는 외촌(瓦村)으로 진군하고 군기와 전열을 정비하면서, 건장하고 용기 있는 병사를 선별하여 영전성의 서쪽 봉우리에 올라가 성안의 왜적의 수자나 형세를 면밀히 정찰하도록 지시하였다. 24일에는 추평(杼桴)에서 군진을 펼쳐 군사들의 위엄을 보이게 하니 성안의 왜적들이 성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삼달(全三達)을 보내 글로써 손덕심(孫德沈, 호는 모현(慕軒))을 맞아오게 하였는데, 그 어머니가 병환이 위중하여 오지 못하고 군량과 수백의 의병을 모병하여 보내 주었다. 25일에는 군졸들로 하여금 화공(火攻)의 도구를 많이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충의공이 평소엔 천문지리에 매우 밝았는데, 이를 후인 27일에 동남풍이 불 것을 미리 알고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때에 경주 사람으로 권사약(權士謫)·손시(孫時)·최진립(崔震立) 등이 정병수 백명을 거느리고 와서 같이 모이게 되었다.

7월 28일 동이 트기 전에 모인 각 고을의 의병은 신병, 영천, 하양, 의흥, 청송을 비롯하여, 군위, 경주, 자인 등지 총 군병의 숫자가 3천 5백명이었다고 군진을 3군 부로 나누어 신해(申海)를 좌총(左總)에, 문병(文炳)을 우총으로 정대임(鄭大任, 1533-1594)을 중총으로 삼았다. 23일 무렵 이미 정대임이 항병 수 백명을 거느리고 참가하였고 영전군수 김운국도 돌아와 별장을 받았다. 홍천퇴(洪天賚)를 전봉(前鋒)으로 삼고 정세아의 정담(鄭澗)을 찬획(贊勳)으로 종사케 하여, 왜적을 초토화 시켜 멸할 계획을 면밀하게 짰다. 영전성의 왜적의 숫자는 5백 여명으로 파악되었다. 충의공은 식량이 떨어진 왜적들이 오래 농성(籠城)하지 못할 것을 알고 영전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드디어 26일 아침 동이 뜨자 마음이 급해진 왜적들이 대거 동문과 북문으로 쳐달려 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 論語解說(2)

논어 해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權貞澤



人讓而不怍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아  
[증자왈 오일삼성오]

것이며, 그러고도 여력이 있으면 그 남은 힘으로 글을 배우라."

[원문] 子曰 弟子入則孝하고 出則弟하며 謹而信하며 汎愛衆하며 而親仁이니 行有餘力이거든 則以學文이니라.

[자왈 제자입즉효하고 출즉제 그 남은 힘으로 글을 배우라.]

[이해]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매사에 신중하고 남한테는 신용을 잃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인물과 가까이함을 실행하고서도 남은 여력이 있다면 글을 배우라 함은 결국 거창한 이론보다는 사소한 인의의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3장 자하가 말하였다. "어진 사람을 존경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부모를 섬김에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김에 그 몸을 바칠 수 있고, 벗과 사귀며 신의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을 지라도 나는 반드시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원문] 子曰 賢賢易色하며 事父母能竭其力하며 事君能致其身하며 與朋友交와 회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라도 吾以謂之學矣리라.

[자하왈 현현역색하며 사부모 능갈기력하며 사군능치기신하며 여붕우교회되 언이유신이면 수왈 미학이라도 오필위지학의리라.]

[이해] 자하(子夏)는 복상(卜商)의 자(字)이며,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마흔네 살이 연소하였다. 현자를 존경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성심으로 부모를 섬기며, 목숨을 바쳐 임금을 섬기며, 벗과의 교제에 신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별달리 배운바가 없더라도 배운 사람으로 대하겠노라는 말 가운데서 실로 무언가를 제대로 깨우친 사람다운 면모를 느끼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

上者는 鮮矣니 不好犯上이요 而好作亂者는 未之有也니라 君子務本이요 本立而道生하나니 孝弟也者는 其爲人之本與인저.

[유자왈 기위인야효제요 이호범상자는 선의니 불호범상이요 이호작란자는 미지유아니라 군자무본이요 본입이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기위인지본여인저.]

[이해] 유자(유자)는 공자의 제자 음악을 가르치며, 공자보다 서른세 살이 연소하였고, 노나라 사람이자. 약(若)을 유자라 존칭한 것으로 미루어 이 장은 유약의 제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효성과 우애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서 도리에 어긋난 행실을 하는 자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고 효제(孝悌)는 사람다음에 기본배대를 형성하는 바탕을 이루는 만큼 군자는 먼저 본질을 도약기 위해 매진한다는 것이다.

제3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교묘히 꾸며대는 연동과 아첨하는 안색에는 드물다 인자(仁慈)함이."

[원문] 子曰 巧言令色에는 鮮矣仁이라.

[자왈 교원영색에는 선의인이라.]

[이해] 약삭빠른 말과 좋은 것처럼 꾸며대는 얼골빛에서는 어짐을 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4장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나는 매일 세 차례씩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한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진 않았는가, 벗과 더불어 사귀는데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원문] 曾子曰 吾日三省吾身하나니 爲

### 제1편 학이(學而)

학이편(學而篇)은 열여섯 장(十六章)이고 배우는 사람들이 덕을 쌓기 위해 기본으로 먼저 힘써야 될 일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모든 편목은 각 편 첫머리 시작 부위에서 두 글자씩을 취해 쓴 것이다.

제1장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제 때에 복습하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자기를 알 아지 않더라도 노여움을 품지 않는 것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원문]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라도 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자왈 학이습습지면 불역설호아 유붕이 자원방래면 불역악호아 인불지라도 이 불은이면 불역 군자호아)

[이해] 먼저 깨우친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닦아 덕성을 쌓고, 훌륭한 인격이 갖춰진 인물과 교류하며,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뿐, 남들이 내 실력을 몰라주더라도 개의치 아니 한다는 것이다.

제2장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면 서 뒷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란 드물다. 뒷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아직껏 없어 본적이 없다. 군자는 기본을 닦는데 힘을 뺏이요, 근본이 확립되어야 도가 생겨난다. 효성과 우애는 그것이 사람다음에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원문] 有子曰 其爲人也孝弟요 而好犯

신하나니 위인모이불충호아 여붕우교이불신호아 전불습호아]

[이해]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며, 공자보다 마흔여섯 살이 연소하였고, 노나라 무성(武城) 태생이다. 증자의 차 세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성실과 신의 및 인격 도야를 중심으로 한 증자의 생활 태도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제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더라도 매사를 공경스럽게 다루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며, 비용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끼며, 시기를 잘 맞추어 백성들을 부르면 된다."

[원문] 子曰 道千乘之國이라도 敬事而信하며 節用而愛人하며 使民以時리니라.

[자왈 도천승지국이라도 경사이신하며 절용이 애용하며 사민이시리니라.]

[이해] 승은 혁거(革車:군용차)를 썬하는 말로 천 대의 군용차를 징발할 수 있으려면 공후의 분공 같은 큰 제후국이고, 그 면적 단위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치국에 방도를 충고하는 구절로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필요 외에 소비를 절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일로 백성을 동원 할 때는 그 시기를 잘 선택하라는 것이요 접이다.

제6장 공자가 말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뒷사람에게 공경스러우며, 매사를 삼가고, 신용 있게 굴며, 널리 모든 사람을 아끼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할



수 불 해 ) 나 天必戮之(천필육지)니라. 해설: 장자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착

## 明心寶鑑

명심보감

본원 종사 연구위원 권혁채

(지난호에 이어)

### II.天命篇(천명편)

○ 子一曰(자-일) 順天者(순천자)는 存(존)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느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명을 순종하는 자는 살고, 천명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느니라."고 하셨다.

○ 姜節邵先生이 曰(강절소선생이 曰) 천청(天聽)이 적무음(寂無音)하니 蒼蒼何處尋(창창하처섬)고 非高亦非遠(비고역비원)이라. 도지재인심(都只在人心)이라.

해설: 강절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물음심이 고요하고 소리가 없어 푸르고 푸르기만 한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다.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라.'고 하셨다.

참고: 강절소선생(1011~1077)-송나라 때 유학자로 성은 邵(소), 이름은 雍(옹), 자는 堯夫(요부), 姜節(강절)은 시호이다.

順(순)할 순, 存(존)을 존, 逆(거슬)릴 역, 康(편안)강, 那(높을)소, 聽(들)을 청, 寂(고요할)적, 蒼(푸

를 창, 壽(찾을)심, 只(다만)자

○ 玄母垂訓에 曰(현제수훈에 曰) 人間私語(인간사어)라도 天聽(천청)은 若雷(약뢰)하고 暗室欺心(암실기심)이라도 神目(神目)은 여전(如電)이니라.

해설: 현제가 훈계로 말하기를,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와 같이 들리며,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으니라.'고 하셨다.

帝-임금 제, 語-말씀 어, 暗-어두울 암, 欺-속일 기, 電-번개 전

○ 盒書에 云(익지사에 云) 惡鑑(악관)이 若滿(약만)이면 天必誅之(천필주지)이라.

해설: 익지서에 이르기를 '나쁜 마음이 가득차면 반드시 베일 것이니라.'고 하셨다.

참고: 익지서는 중국 송나라 때에 만들어진 교양에 관한 책.

盒-더할 의, 盥-씻기 지, 鑑-두레박 관, 滿-찰만, 가득할 만, 誅-벌 주

○ 子曰(자 曰) 獲罪於天(획죄어천)이면 無所禱也(무소도야)이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일을 하여 하늘에서 죄를 얻으면 용서를 빌 곳이 없다."고 하셨다.

獲-얻을 획, 禱-빌 도

(다음 호에 계속)